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세계시민으로서 국민적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역사 정책 방안  
[발제자]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일 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 제39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국가차원에서 역사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민의식형성과 국가정체성에 역사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역사논쟁은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과의 화해로운 교류에 장애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 역사교육은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된다. 동 시대 세계사의 맥락과 국제질서를 함께 봐야 한다.

우리가 구한말 이런 것을 게을리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세계 각 지역 민족·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산업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한국인을 육성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자민족 및 자국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은 이해를 통해 국가와 민족 정체성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 ◆ 역사 정책 방안 모색의 필요성 및 배경

- ◆ 국가차원에서 역사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민의식형성과 국가정체성에 역사교육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교육은 중요하다. 그러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논쟁은 이웃 국가인 일본 및 중국과의 화해로운 교류에 장애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 역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의식 형성이다. 이렇듯 역사교육은 국민적 역사 교양 형성과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 ◆ 역사문제 접근의 기본 원칙

- ◆ 역사의 기록과 편찬은 후대를 위한 가치 있는 유산이다. 역사는 모든 연구의 기초이다. 때문에 공공적인 차원에서 역사자료 정리와 다양한 역사편찬의 장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문제를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는 과거 일본과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문제였다. 따라서 정책적 법제적 접근보다는 사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과 국민, 시민의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한 역사편찬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적 논란의 역사문제는 공통의 토대를 마련하여 점진적인 해결 도모가 필수적이다.
- ◆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사 자료 정리와 편찬이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하다 보면 세계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그 가치를 존중하게 된다.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기여,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자기발전을 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 역사정책방안

- ◆ 국사편찬위원회를 ‘역사편찬위원회’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미루고 덮어두었던 대한민국사 자료집과 대한민국사 편찬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

리 및 세계사를 이론적 바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편찬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국사 편찬위원회라는 이름은 알맞지 않다. 현대문명과 세계질서 속의 대한민국사와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 ‘대한민국열전’을 편찬해야 한다. 지난 70년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 중요한 경험이다. 대한민국을 일구고 가꾼 사람들의 경험을 편찬하여 남기는 것은 미래유산 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유산이다.
- ◆ 세계 6대주 각 민족 및 국가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대백과사전을 편찬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활약에 지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국민 교양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한국사 편찬이 필요하다. 현재 단일한 관점의 역사 편찬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여 4개 정파(우파-중도우파-중도좌파-좌파)적 입장을 고려하고 합의를 통한 한국사 편찬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각 정파가 주관적으로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에 입각하고 상대편찬자 입장에서도 수긍이 될만한 설명책임을 가지고 편찬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날조되고 편향적인 해석은 자체적으로 절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읽고 배우며 교과서 편찬 기준에도 맞는 ‘국민교양한국사’를 편찬해야 한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양서가 되어야 한다.
- ◆ ‘국내 10대사건’과 ‘세계 10대사건’을 선정하여 공표하고 해설을 붙인 책을 발간해야 한다. 역사편찬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 사관의 통찰력과 의식으로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외의 사건을 주간 단위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시킬 것이다.
- ◆ 역사편찬은 동시대의 세계사 맥락과 국제질서를 배경으로 해야 한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전망하고 찾는 노력이 지속가능한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보증하는 길이다. 우리가 구한말 이런 것을 게을리 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도 세계는 격변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 민족·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산업에 대해 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한국인을 육성하고 세계 국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또한 자민족 및 자국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은 이해는 국가발전과 민족 정체성을 기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